

베스트셀러 제조기, 오프라 윈프리 북클럽

선정하는 책마다 단숨에 밀리언셀러로 만들며 출판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오프라 윈프리의 북클럽이 지난 3월 말, 언론과 거의 접촉하지 않는 작가의 책을 선정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번에 윈프리가 선택한 책은 지난해 9월에 출간된 《더 로드》(The Road)로 불에 탄 황무지를 떠돌며 살아남으려는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담은 어둡고 종말론적인 작품. 전미도서비평가상의 최종 심사작이었으며 풀리처상의 유력한 수상 후보로 지목되고 있다.

글 서주현

작가인 코맥 맥카시(Cormac McCarthy)는 그 동안 《피의 자오선》(Blood Meridian) 등에서 보여준 성격적인 문체와 전원적 배경으로 인해 종종 윌리엄 포크너의 후계자로 불리는 인물이다. 양장본 출간 이후 수 주간 베스트셀러 목록에 머물며 13만 8천 부가 팔린 이 책은 오는 9월 이후에 페이퍼 북(보급판)으로 다시 출간될 예정인데 북클럽 선정에 힘입어 출판사측은 초판 95만 부를 찍어낼 예정이다.

미국 내 시청자만 2,200만 명에 세계 104개국에서 방영되는 토크쇼의 여왕, 잡지 케이블TV 인터넷까지 거느린 하포 주식회사의 회장, 자기 자신이 브랜드이자 돈인 오프라 윈프리. 그녀의 말에 수백 만이 책에 관심을 갖고, 팬들은 그녀가 골라준 책에 우르르 달려든다. 그녀는 '출판업계의 마이더스'로 불리며, 그녀가 괜찮다고 추천하는 책은 순식간에 베스트셀러가 된다. 북클럽을 통해 그 동안 연속적으로 총 30권이 넘는 베스트셀러가 탄생했고, 그녀가 출판업자들에게 안겨준 매출은 2억만 달러에 달한다. 이를 두고 '오프라 현상' (Oprahism)이라고 할 정도로 오프라 윈프리의 책과 독자들에게 대해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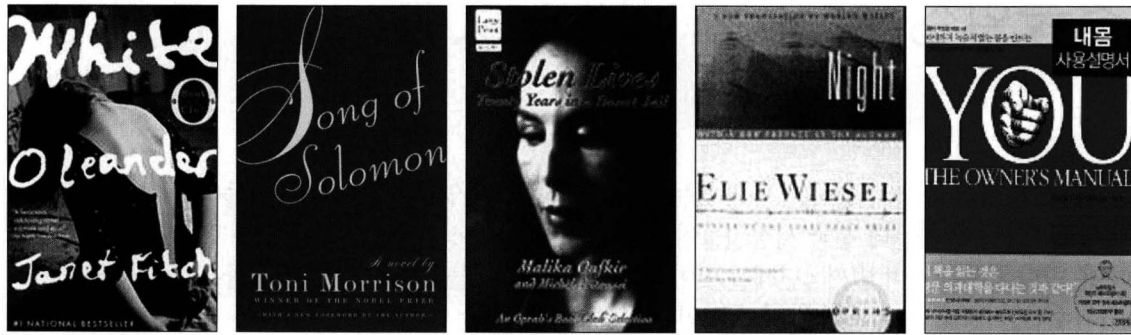
오프라 윈프리 북클럽의 역사

1996년 오프라 윈프리는 '오프라 북클럽'을 도입함으로써 자신의 미디어 제국을 출판 영역까지 확장했다. <오프라 윈프리 쇼>를 재구성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또 열성적인 독서가로 자부하는 자신과 같이 미국의 국민 모두를 독서에 빠지게 하고 싶다는 욕심으로, 윈프리는 문학적인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되는 책을 추천하기 시작했다. 윈프리는 매달 책 한 권(주로 소설)을 선정해 시청자에게 소개했다. 시청자들은 2~4주 정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선정된 책을 철저히 읽었다. 그런 다음 저자가 쇼에 나와 몇몇 독자들과 더불어 책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이 프로그램은 즉각 호평을 받아 이 쇼의 시청자 수를 2,000만 명으로 끌어올리고 북클럽에서 선정한 도서를 베스트셀러로 만들었으며, 윈프리 자신은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의 흥미까지 북돋우는 새로운 재능을 갖춘 문학의 인기 제조기라는 평판을 얻었다. 장편소설의 경우 2만 부 정도 팔리면 베스트셀러로 취급되는 현실에서 그가 선정한 책들은 기본적으로 100만 부 이상 팔려나갔다. 하지만 프로그램과 관련해 이런 저런 잡음이 생겨나면서 2002년 작가를 초청하는 프로그램이 폐지되었고 "좋은 책을 고르기가 너무 힘들다"는 윈프리의 불평에 출판계는 분노했다.

1년 뒤 윈프리는 신간이 아닌, 존 스타인벡의 《에텐의 동쪽》, 펄 벅의 《대지》 등 고전 작품들을 선정해 소개했으나 예전만큼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했다. 그 후 2005년 9월, '오프라의 북클럽'은 다시 예전처럼 현대 작품으로 복귀, 제임스 프레이의 《백만 개의 작은 조각들》을 소개했다. 이 책은 그 후 350만 부 판매를 기록했지만, 확인 결과 책 내용



중 상당부분이 허위로 밝혀짐에 따라 논란이 제기됐다.

그 후 윈프리는 2006년 1월, 엘리 비젤의 《밤》(The Night)을 공식 추천, 다시 그 해 11월, 《내 몸 사용 설명서》(You: The Owner's Manual, 국내 : 김영사 출간)를 추천했다. <오프라 윈프리 쇼>에 소개된 직후 로이젠과 오즈 의사의 책 세 권 모두 아마존닷컴의 베스트셀러 자리를 차지했다. 저자들은 심장을 수도관으로, 소화기관을 배수구로, 뼈를 집의 골조로 비유하는 등 사람의 인체를 집으로 간주해 흥미롭게 책의 내용을 전달하며 호평을 얻었다. 그리고 앞서 소개했던 《터로드》가 선정되기 두 달 전인 2007년 1월, '오프라의 북클럽' 작품으로 원로배우 시드니 포이티어의 저서 《사람의 척도》(The Measure of a Man)가 선정된 바 있다.

오프라 윈프리 현상, 그 영향력은?

팬들은 스타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듯 윈프리가 골라준 책에 우르르 몰린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진정한 책 읽기가 아니다”라고 말한다. 인생의 성공 여부가 온전히 개인에게 달려 있다는 오프라이즘(Oprahism)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없지 않다. 기회는 널려 있으므로 노력만 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아메리칸 드림을 합리화하고, 사회적 모순을 은폐하며, 여성과 소수민족에 대한 제도적 차별을 교묘히 감춘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매일 수백만 고정 시청자를 만나는 윈프리는 막강한 영향력

을 행사하며 새로운 독자층을 넓혀가고 있다. 그 앞으로 매일 쏟아져 들어오는 편지 중에는 “덕분에 수십 년 만에 처음 책을 읽었다”는 내용이 많다고 한다. 어쨌든 “독서가 인생을 바꿨다”고 오프라 윈프리를 따라 말하는 독자들이 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라고 <뉴욕 타임스> 매거진은 전한다.

뉴욕에 밀집해 있는 출판업자들은 오프라 윈프리가 좋아할 책을 찾느라 혈안이다. 더블데이사는 ‘오프라 타입을 감독적이고, 고통스런 휴먼 스토리’라고 정의한다. 너무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은 ‘컬러 퍼플’ 류다. 대부분 주인공은 학대로 얼룩진 유년 시절을 보내다 내적 성장을 거쳐 해피엔딩을 맞는다. 흑인여성으로서 힘겨운 싸움 끝에 오늘의 성공을 이룬 본인의 과거와도 비슷하다.

그래서인지 오프라 윈프리의 영향력은 경제경영서나 자기계발 관련 서적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그녀가 추천했던 《내 몸 사용 설명서》가 현재 국내에서도 베스트셀러로 그 주가를 한창 올리고 있으니 오프라 윈프리의 북클럽이 미국의 출판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대단한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앞으로도 그녀가 어떤 책을 추천할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을 출판인은 거의 없을 것이다. **◆**

서주현님은 북코스모스 에이전시 저작권팀에서 근무하고 있다.